

# ‘부실 공사 억제’ vs ‘불법 하도급 양상’

## 건설 직접시공제 300억원 확대 추진 논란 종합·전문건설 입장차... 갈등 심화 우려

최근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직접시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간 이견이 맞서는 등 찬반논란이 뜨겁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에서 직접시공제는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비율은 △50억~30억원 10% △30억~10억원 20% △10억~3억원 30% △3억원 미만은 50%다.

최근 정치권에서 건설법 개정을 통

해 직접시공제 비율을 확대하려고 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종합건설은 직접시공제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우선 직접시공제도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직접시공 의무비율도 △10억원 미만 5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40% 이상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30% 이상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직접시공제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부실 공사를 억제하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직접시공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시공하면 하도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자칫 불법 하도급만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다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 건설단체 관계자는 “직접시공제의 경우 종합과 전문건설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라며 “획일적인 법 개정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은복 rio@kado.net

/ 강원 부동산 시장 /

## “내년 주택경기 급락”

### 한은 강원본부 올림픽 특수 소멸 전망

강원도 주택시장이 과열된데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건설특수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주택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내집 마련 필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 강순삼)는 6일 ‘강원 주택시장 가격구조 변화 분석’, ‘강원도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이란 분석자료를 배포하고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주택가격은 낮은 인구증가율 등 편더넨탈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수년간 전국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릉지역 주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신축블랑이 크게 증가했으며 강릉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이례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과열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과열분위기의 도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초의 영향보다는 경기변동성 축소로 투자기회가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유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도내 실질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지난해 이후 장기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으며 특히 주택매매가격이 장기균형에서 크게 이탈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건설물량이 2017년 중 소멸돼 경기주체의 부동산 심리가 약화되면 이같은 불균형이 빠르게 조정돼 주택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지역별 대책으로 △춘천=수도권 통근자들의 거주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주거환경 수준 향상 △원주=자족도시 기반 구축 및 장기적인 인구유입 방안 마련 △강릉=전원지향형 이주수요 흡수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기섭 kees20@kado.net

# 5월 국내 건설수주 29% 급감했지만... 투자흐름은 양호

(전년 대비)

5월 국내 건설수주 실적이 공공과 민간 모두 부문에서 감소했다.

5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10조9717억 원 을 기록, 지난해(15조4956억 원) 같은 기간 보다 2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수주액(12조303억 원)보다는 8.8% 줄었다. 중심제·중경제 발주물량이 늦어지고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한건설협회는 5월 국내 건설 수주 동향 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35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 줄었다. 공공별로 토목은 철도·도로와 발전설비 공종 을 중심으로 32.8% 감소했다. 주요 공사는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간 건설공사 △동해항 3단계 북방교체 축조공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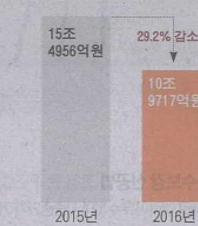
건축은 공공주택 신축 등을 중심으로 21.3% 감소했다. 주요 공사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건립사업 △공주월송 A-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다.

민간 부문 수주액은 7조93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3% 하락했다. 공공별로 토

## 건협 집계 '10조9717억' 공공·민간부문 동반 감소

### 중심제·중경제 발주 지연 주택시장 불확실성 커진 탓

5월 국내 건설수주액



목은 도로(민자)와 토지조성 공종을 중심으로 28.8% 증가했다. 주요 공사는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울산 GW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다.

건축은 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31.5% 줄었다. 주요 공사

는 △사이 더 익스프레스 3차 △평택 동삭2지구 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다.

건설협회는 특히 주택 건설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주 실적 상승을 이끌었던 주거용 건축 공종이 들어 상승·하락을 반복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올 들어 주거용 건축 실적 증감률은 △1월 -26.6% △2월 101.2% △3월 -25.9% △4월 38.7% △5월 -19.7%다.

또 공공 부문 수주 실적이 올 들어 작년 보다 저조한 것은 공공기관의 종합심사나 합제 및 지자체의 종합평가나 합제의 세부 평가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물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사 수주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공사발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 수주실적 증감률은 △1월 1.1% △2월 -4.8% △3월 -3.8% 4월 -39.4% △5월 -28.9%였다.

건설협회가 월마다 조사 발표하는 국내 건설공사 수주는 통계청 건설경기동향 조사와 협회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자료다. [한성문기자 newsjpa@](#)

## KDI "기성 8.5兆로 20% 늘어" 건축·토목부문 모두 증가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설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기성(물량)은 8조5540억 원으로 전년 동월(7조1152억 원) 대비 20.2% 증가했다.

건축부문(25.2%)이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토목부문은 플랜트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3.1% 확대됐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1.6% 증가로 전월했고, 민간부문도 전월(27.0%)에 이어 높은 증가세(29.3%)를 지속했다.

건설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기저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달 건설수주(경상)는 9조4127억 원으로 전년 동월(12조6393억 원)보다 25.5%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주택, 공공서

5월 국내 건설기성액



부문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31.0% 줄었고 토목부문은 항만·공항, 도로·교량부문의 개선으로 9.2% 증가했다.

한편 KDI는 최근 일부 생산 관련 지표의 부진이 완화됐지만 경기 개선 추세를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생산 관련 지표가 전월의 부진에서 반등한 가운데 소매판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문기자 kmp@

## 강원도의회 상임위원장

### 오세봉 운영위원장

오세봉(59) 신임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간 관계는 물론 여야 원내와 의회사무처 등 의회 안팎 이해관계자들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릉 출신의 오 위원장은 8대 의회에서 새누리당



원내총무와 송전탑 피해대책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반기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장세국 기획행정위원장

장세국(70) 신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힘을 합쳐 정부에 요구할 것을 당당히 하면서 도민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천 출신으로 화천 정보산업고를 졸업했으며 강



원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화천군 기획감사실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제7대 도의원 등을 역임했다. 화천군 재향군인회장을 맡고 있다.

### 조영기 사회문화위원장

조영기(56) 신임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도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구 출신으로 강원대를 졸업한 조



위원장은 양구군수 비서실장과 도체육회이사 등을 거쳐 7대 도의원 및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8대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했다.

##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

진기엽(49) 신임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강원농업과 수산, 산림, 축산 등 다방면에서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형성 출신의 진 위원장은 강원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도장에인체육회 이사, 황영철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7대 도의원을 역임했다.

## 박길선 경제건설위원장

박길선(55) 신임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높이 날아 멀리 보는 경제건설위원을 만들어 꼭 막힌 강원경제 곳곳을 뚫어줄 수 있는 소화제 같은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 출신으로 연



세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한나라당 원주시지구당 조직부장 등을 지냈다. 우산산악회장, 웨네스코 리아 대표 등을 맡고 있다.

## 남경문 교육위원장

남경문(54) 신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정책,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강연교육을 추진하는데 교육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선 출신으로 강원대 토목공학과를 졸



업한 남 위원장은 7대 도의원과 8대 사회문화위원장, 동계올림픽유치특위 위원장을 거쳐 전반기 폐광지역발전촉진특위 위원장으로 강원대 토목공학과를 졸

김여진